

대통령비서실 직원 연수 특강

스스로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여야 합니다

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행복

사람과 시대, 집단과 나라마다 행복을 정의하는 기준이 다르겠지만, 힘이 들더라도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좋은 사회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행복을 느끼는 넉넉한 나라를 빨리 만들거나 수준을 높이면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넉넉한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억압과 부조리가 없는 사회가 균형사회입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적인 나라, 균형 있게 잘 사는 나라, 정의롭고 부조리가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겠지만, 이를 성취하는 것이 보람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되는 길이라고 봅니다.

부정적 요소는 극복하며 긍정적인 국가로

우리는 다행히 부정적으로 평가되던 시대에도 눈부신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부정적 요소들을 빠르게 극복하면서 긍정적인 업적을 잘 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경제가 100배 성장했습니다. 1945년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가장 빠른 정치적 발전을 이루어 곧 선진민주주의의 문턱에 다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참다운 민주주의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 때 많은 국민들이 요구했듯이 제왕적 권력을 민주적 권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정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정당을 지배하고, 이를 통해 국회를 장악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러한 과거의 문화와 고정관념을 털어내야 합니다. 바뀌야 하고 바꾸고 있습니다.

권력의 유착을 해체하는 것이 정치적 개혁과제

지난 1년간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꾸준히 간다면, 대통령은 대통령의 몫을 하고 국회는 국회의 몫을 하는 시대로 갈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이 있습니다. 권·언관계도 제자리로 돌려놨습니다. 권력과 언론이 월권을 하거나 특권을 주고 받았던 권언유착이 해소됐습니다. 힘들고 곱끄러운 일이 남아있지만 꾸준히 가면 달라질 것입니다. 권·권분리도 이루어졌습니다. 검찰, 국정원,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이 더 이상 국민 위에 군림하는 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권력기관 인사는 국민충성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힘 있는 재계와 권력의 유착관계는 이미 청산된 것 같습니다. 정(政)·권(權)·언(言)·재(財)가 유착해 강자의 지배구조를 형성해 이루어지는 부정부패의 구조를 해체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착의 구조를 없애는 것이 우리의 정치적 목표이고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의 과제입니다.

엘리트민주주의를 넘어 대중민주주의 시대로

노무현이 뭐했냐고 한다면, 감히 부조리의 핵심에 들어와 유착과 부조리의 핵심적 구조를 해체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하자면 저비용 정치를 구현하고 제도화해야 합니다. 유착구조의 해체만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엘리트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중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민주적 권리를 누리고 참여하는 문화가 대중적 토대 위에 섰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을 어떻게 갈 것입니까.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투명한

정치, 투명한 사회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한 사람보다 열 사람의 아이디어가 좋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창의를 목표로 한 분권과 자율, 대화와 타협이라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와 공직사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려면 일을 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능률을 두 배로 올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주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프로세스를 관리해나가야 합니다. 막상 실천하려면 엄두가 나지 않겠지만 시스템을 고치고 프로세스와 자세를 바꾸고 변화를 관리하는 기술을 도입해야 합니다.

혁신으로 국민과 소통하여야

여러분들이 혁신의 최고 기술자,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토론을 한 번 해서 뭐가 나오면 덮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토론을 통해 끝까지 가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조직은 일부 사람들이 선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청와대 공무원은 전원이 선도팀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 해봅시다. 업무에서 비능률과 비효율을 찾아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집요하게 매달려 끝내 해결하는 변화의 지도자들이 새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이를 위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발견하고 나쁜 것은 뿌리를 뽑고 잘된 것은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와 나를 혁신해야 정부가 혁신됩니다. 그래야 일 잘하는 정부라는 국민들의 평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하지 않으면 새로운 도약은 이룰 수 없습니다. 옛날처럼 일사불란하게 따라오라고 할 수도 없고, 따라오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모두 스스로 참여하여 길을 찾아야 합니다. 스스로 새로운 문제를 발굴해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국민들이 알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려면 국민들의 뜻이 반영되어야 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실적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생각과 이해를 반영하지 못하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국민과 대화하는 정부가 되어야 갈등의 예방과 조정도 가능합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나아가 국민들과 직접 교감하고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낙관적 전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국민소득 1만불 시대의 라인을 상품생산을 중단시키지 않으면서 2만불 시대의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조직혁신은 지도자가 이끕니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는 고사성어처럼 우리가 길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칠 때 87년 6월이 오거나 성공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추진하면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